

# “나는 어느 도박중독자와 다르다는 착각 벗어나야”



## 도박중독 상담 전문가 김한우씨 광주 강연

### 인터넷게임 등 새로운 형태 등장...젊은층 위험 노출 도박중독을 개인 문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 아쉬워

“도박중독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박에서 큰 돈을 따고 있을 때, 또는 많은 돈을 잃었을 때 곧바로 멈출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박중독입니다. 나는 언제든 도박을 중단할 수 있지만 지금 멈추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박중독 추방의 날(9월 17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남대 박물관에서 광주시민을 만난 임상심리전문가 김한우(42)씨는 도박중독에 관한 사회 분위기를 지적했다. 한국마사회 인재교육원 유권센터에서 도박중독상담 전문가로 일하며 ‘왜 우리는 도박에 빠지는 걸까’ 등의 책을 펴낸 그는 도박중독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터넷도박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 등장하면서 대학생 등 젊은층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도박이 가진 특징을 돈과 승패, 불확실성 세 가지로 요약했다.

“도박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돈을

간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를 걸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과 패할 확률이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잃기만 하면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도박에서 돈을 얻거나 잃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중독된 당사자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한 개인이 보상심리 때문에 도박에 심취하는 등 중독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폐해는 유사하다고 말했다. 도박중독을 감지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잃어버린 돈과 시간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학력, 재산,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거짓말이 커지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가족과 사회 모두에 무책임한 개인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술과 담배,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금단현상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처럼 도박중독도 개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멈출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도박을 멈추려해도 과거 큰 돈을 쉽게 벌었던 경험 때문에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받는 생활로 만족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도박중독상담기관에서 10년 넘게 상담한 전문가가 추천하는 도박중독 치유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나는 어느 도박 중독자와 다르다”라는 착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할 수 없다면 중독을 인정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박중독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태도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박에서 ‘돈’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에 중독된 분들은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돈을 벌면 잃어버린 가족과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가족과 시간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우정사업본부, 소아암 어린이에 지원금



17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행사에서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과 우체국 모델인 고아라(왼쪽)가 소아암 어린이에게 지원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 조선대병원 택시 승강장 리모델링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가운데)은 18일 병원 본관 앞에 위치한 택시 승강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조선대병원>

## 광주·전남병무청, 산정중 학생 병역체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지난 17일 산정중학교 학생 20명을 병무청으로 초청해 해병대 체력검정 및 면접 등 병역과정 체험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 장성 동화초, 백암산 입암산성 견학



장성 동화초등학교(교장 윤석훈) 학생과 교사 20여명은 지난 17일 백암산국립공원에 ‘입암산성’을 찾아 선열들의 의병정신을 배웠다. <동화초등학교 제공>

## 임진왜란 호남인 항쟁 역사 갈무리

### 김세근씨 ‘임진왜란과...’ 완간

향토사학자 김세근씨가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은재미로)을 완간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1권·2권을 낸 데 이어 이번에 ‘정유재란과 호남사람들’을 펴냄으로써, 임진왜란 7년 국난의 시기에 펼쳤던 호남인들의 의로운 항쟁을 역사로 갈무리했다.

“지난 5년여 동안 ‘시간여행’과 ‘공간여행’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과 국내의 현장 답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호남사람들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본 교토의 코 무덤은 정유재란의 희생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나를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정유재란 때 호남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고 한다. 인적, 물질 피해가 막대했으며 특히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참혹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피해 속에서도 호남인들은 이순신을 도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구례와 장성, 남원, 순천 등지에서 의병들이 다시 일어나 결사 항전을 치렀다는 것이다.

그는 책 완간의 의미를 최근에 보고 있는 영화 ‘명량’의 인기와 연계해 말한다. 임진왜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작금의 한·중·일 3국 관계가 그때와 흡사하다는 이유다.

“이순신의 뉘그러, 인간적인 면모가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순신은 명량대첩을 이룬 것은 실로 천행이었고, 그 천행은 백성들 덕분이라 했습니다. 장수의 의(義)는 충(忠)을 쫓고, 그 충은 백성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 여수 한려클럽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활동

여수 한려클럽이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나눔을 펼쳐 지역사회에 미담이 되고 있다.

국제와이즈맨 여수지부 한려클럽은 최근 회원 60여명과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어르신들을 위한 집수리에 나섰다. 회원들은 이날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13가구에 도배·장판·전기시설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마련과 의료봉사(김상수 치과)까지 함께 실시해 주민들의 기쁨을 더했다.

김대환 한려클럽 회장은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졌다 해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작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며 “앞으로도 와이즈맨의 모토인 친교·교양·봉사에 걸 맞는 사랑나눔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1년 창립된 한려클럽은 창립한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외로



여수 한려클럽이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나눔을 펼쳐 지역사회에 미담이 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학담 스님 ‘아함경’ 출판기념회 내일 선덕사

학담 스님의 ‘아함경’ (한길사) 발간을 기리는 출판기념회가 20일(오후 4시) 산수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에서 열린다.

대승사, (주)도서출판 한길사, 선덕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주관으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는 전 12책 20권(원고

지 4만여 매)에 이르는 ‘아함경’의 장대한 문화적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다.

학담 스님은 이번 ‘아함경’에서 난해한 경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언어로 풀어나고, 선(禪)과 교(敎)를 넘는 통합적 해석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새롭게 조명했다.

1970년 경주 분황사에서 ‘도문화사’에서 은사로 범상(法相) 범명으로 출가한 학담 스님은 20대에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하기도 했다. ‘사십이장경각의’, ‘범화삼매의 길’, ‘반야심경통서’ 등 수많은 저서를 펴냈다. 문의 062-263-4660. /박성천기자 skypark@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동창회

- ▲광주 북성중 총동창회(회장 정균표) 주관 북성인한마음 대축제=20일(토) 오전 9시 모교운동장(우천시 체육관)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유은 동문 한마음대축제=21일(일) 오전 10시 광주 동성고 운동장문의 유은학원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황명성) 9월 정기월례회의=23일(화) 오후 7시 광주 서구 농성동 마리아주웨딩스퀘어 3층 062-384-7447.
- ▲재광 순천 매산고 총동창회(회장 장진훈) 정기모임=25일(목) 오후 7시 30분 광주 서구 내방동 ‘좋은친구’ 010-3601-7701.

### 중친회

- ▲진주 강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20일(토) 오전 11시 30

- 분 진주 강씨회관 3층 대회의실 062-228-3368.
- ▲광산 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25일(목) 오후 6시 30분 월산동 우미추어탕 062-369-1171.

### 알림

- ▲광주·전남병무청 국군장병 감사편지 운동=30일(화)까지 편지·엽서·응원영상 등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보낼주소 - 광주 서구 양림로 119번길 광주전남병무청 운영지원과 우편번호 501-745, 이메일 cspp7943@korea.kr 문의 062-230-4420.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료자선봉사는=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분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범담 062-385-1336.

### 모집

-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구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 혜택 있음) 010-9612-7695.
- ▲푸른길동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자기가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 부음

- ▲양충봉씨 별세 성관(동강대 교수)·성진(전주 완산경찰서장)·성운·은주·은옥씨 부친상=발인 19일(금) 광주 그린장례식장 4층 특실 062-250-4455.
- ▲김유현씨 별세 영석·영란·혜영·지영·은영씨 부친상=발인 19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홍귀례씨 별세 문석씨·성주·정자씨 모친상=발인 1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염순동씨 별세 조향훈(전 롯데그룹 기획실장)·홍훈(자영업)·창주(한국정밀이사)·은희·선희·영희씨 모친상=발인 20일(토) 광주시 광산구 소가리 장례식장 3층 301호 070-4481-9119.
- ▲김선자씨 별세 이용준·동훈·송이씨 모친상=발인 20일(토) 무등장례식장 102

- 호 062-515-4488.
- ▲윤주선씨 별세 정순철·순호씨 모친상=발인 20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 ▲송옥현씨 별세 태진·태운·수정씨 부친상=발인 20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b>101호 故김원국 님(남/45세)</b> 子: 김지석 女: 김지연 未亡人: 현영숙 *발인: 9월 20일 *장지: 고서면선영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강석호 님(남/30세)</b> 父: 강범모 母: 김지연 兄弟: 김영호 *발인: 9월 20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b>201호 故박재훈 님(남/90세)</b> 未亡人: 정금숙 女/婿: 박선희/김성관, 박관희, 박진희, 박유미/윤국현, 박경희/허창국 孫: 김명관, 김명철, 김명진, 김명수, 김명환, 김명철, 김명철 *발인: 9월 19일 *장지: 담양천주교 묘지 *연락처: 227-4381	
<b>401호 故박금영 님(여/106세)</b> 女/婿: 이종은, 김영태, 김영덕/박문연, 김영삼/김영일 孫: 이명진, 이명진, 이명재, 박근수, 박성환, 박성동, 박병철, 박성철, 박인철, 김명환 *발인: 9월 20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김진례 님(여/88세)</b> 子/婿: 박근선/안명숙, 박태균, 박진영, 김준순 孫: 박광재, 이복수, 박근남/유재영, 박귀례/백준기 *발인: 9월 20일 *장지: 영광충동선영 *연락처: 227-4314
<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	